

소상공인 지원 더 촘촘히… 벤처투자 불공정 관행은 ‘손질’

소상공인기본법·벤처투자법 개정
국세청·고용부 자료 활용 근거 마련
다중·부업사업자 중복지원 차단
벤처투자 불공정 계약조건 제한
중소 우선조달 3.5억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 수립·지원을 위해 앞으로 국세청·고용노동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투자 계약이 제한된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구축·활용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소상공인의 정의에 따라 사업자 중심으로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해 왔다.

하지만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같은 대표자가 다수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뉴시스

‘다중사업자’가 각 점포별로 지원을 받거나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부업사업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개정으로 중기부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세청으로부터 기존에 제공받던 매출액뿐 아니라 사업소득·근로소득과 매출원가·판매비 등 소득·비용과 관련 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확보한 자료는 소상공인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중기부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과세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그동안 사업자 중심 지원으로 발생했던 중복 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 예

산이 촘촘하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벤처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금전 제공 및 수수행위를 금지했다.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한 투자 계약 체결 금지도 규정하고 있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

한 계약조건을 제한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 없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경우 기업공개(IPO) 실패를 이유로 과도하게 증권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제한한다.

또 불공정한 투자 계약 조건을 설정할 경우 해당 조건에 한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피투자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범위가 최대 3억5000만원까지 늘어나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티메프 피해기업 정책자금 상환 부담 낮춘다

중진공·소진공 통해 맞춤형 채무조정
정상 차주 상환유예·기간 연장 지원
연체 차주는 새출발자금과 연계

정부가 ‘티메프’ 피해 기업들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서 중증보다 저렴한 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피해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그러나 최근

정책자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상환능력과 연체 여부 등 차주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상환 차주에는 중진공·소진공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차주에는 ‘새출발자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해 원금 조정·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진공은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기업에 대해 6개월간 원금 상환액을 20%로 낮추고, 조정된 상환일정 이행 시 상환기간 1년 연장을 연계 지원하는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과 상환유예 등

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정상 상환 또는 30일 이하 단기연체 차주 중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임금근로자로 전환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1년 근속 시 0.5%p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정책자금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정책자금 상환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기업별 상환여건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지원해 상환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한화솔루션, 500kV 케이블 소재로 中 공략

상하이 ‘와이어 차이나 2026’ 참가

한화솔루션이 500kV급 초고압 케이블 소재와 패키지를 재활용한 순환형 솔루션을 앞세워 중국 고부가 케이블 소재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 와이어·케이블 전시회 ‘와이어 차이나(Wire China) 2026’에 참가해 차세대 케이블 소재와 순환형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와이어 차이나는 글로벌 케이블 제조사와 소재·설비 기업들이 전력 케이블 관련 제품과 기술을 공개하고 사업 협력을 논의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와이어·케이블 전시회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전시에서 ‘Best Quality, Better Planet’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500kV급 초고압(SEHV) 가교폴리에틸렌(XLPE)과 반도체 소재를 적용한 케이블



한화솔루션 ‘와이어 차이나 2026’ 부스. /한화솔루션

모형을 공개한다. 초고압 송전 환경에서 요구되는 절연 성능과 장기 신뢰성을 중심으로 소재 기술력을 소개할 계획이다.

패키지 케이블 소재를 다시 케이블 생산에 활용하는 순환형 XLPE ‘클로즈드 루프(Closed Loop)’ 솔루션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한화솔루션은 이날 중국 주요 케이블 기업인 ZTT·형통과 각각 소재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원관희 기자 wkh@

LS일렉트릭, 부산공장에 ‘로봇개’… 설비 점검 자동화

부산사업장에 ‘스팟’ 2대 정식 도입
열·소음·진동 감지해 이상징후 포착

LS일렉트릭이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부산사업장에 4족 보행로봇을 투입해 설비 점검과 품질·안전 관리를 자동화한다. LS일렉트릭은 로봇 시스템통합(SI) 전문기업 현대오토에버와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시험 운영을 거쳐 부산사업장에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로봇 ‘스팟(Spot)’ 2대를 정식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사업장은 초고압 변압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곳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력망 투자 확대로 생산 물량이 늘면서 주요 공정과 시험설비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의 필요성도 커졌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Spot을 따라 부산사업장 생산동으로 이동하는 모습. /LS일렉트릭

스팟은 우선 초고압 변압기의 절연 성능을 좌우하는 진공건조로(VPD) 공정에 투입된다.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VPD 챔버 도어 실링 이상과 열 누설 여부를 비접촉 방식으로 자동 점검하고 진공펌프와 모터·제어반의 발열, 소음, 진동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설비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고장에 따른 생산 차질을 줄이는 데 활용된다.

설비 점검과 함께 생산 환경 관리에도 스팟을 활용한다. 인공지능 기반 비전검사(AIVI) 기술로 항온·항습 설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기존 센서로 측정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의 온·습도 데이터까지 확보한다. LS일렉트릭은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생산 환경과 제품 품질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공정별 최적 생산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점검 범위는 초고압 변압기 시험설비와 모터·냉각기·펌프·철러·발전기 등 주요 유틸리티 설비로 넓어진다. 스팟이 주기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AI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예지보전 체계를 구축한다.

/원관희 기자

포스코DX, AI로 AX 컨설팅 기간 절반 단축

AI 에이전트 ‘에이전티-씨’ 개발

포스코DX가 인공지능(AI) 전환 컨설팅에도 AI를 투입한다. 업무 분석과 설계를 지원해 컨설팅 기간을 줄이고 기획부터 구축·운영까지 이어지는 AX(AI 전환) 사업 체계를 강화한다.

포스코DX는 AI 에이전트 ‘에이전티-씨’를 개발해 기업의 AX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이전티-씨는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업무 진단부터 요구사항 분석, 설계서 작성까지 개발에 앞선 과정을 컨설턴트와 함께 수행한다.

기업의 AX 수요는 여러 업무 영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컨설턴트가 프로젝트마다 직접 투입돼 현

업 인터뷰를 거쳐 업무를 분석하고 과제를 발굴·설계했다. 이 때문에 다수의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포스코DX는 에이전티-씨를 기존 AI 에이전트 플랫폼 ‘에이전티’와 연계했다. 에이전티는 AI 에이전트의 개발·운영·평가·재배치 등 생애주기를 통합 관리한다. 에이전티-씨가 도출한 업무 분석과 설계 결과를 에이전티에 입력해 기획부터 구축·운영까지 AX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컨설팅과 설계에 걸리는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이고 개발·운영 단계로 빠르게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AI 워크포스 TF’를 신설해 AX 컨설팅과 AI 에이전트 개발·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